

사회

고3 수험생 울리는 악덕상술

화장품·다이어트 식품 등 고가 상품 계약 유도
해지 거부·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피해 잇따라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업체, 통신사, 요식업체 등이 수험능력시험을 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포스트 수능' 마케팅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의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수능이 끝난 뒤 업체들이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내걸며 수험생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일부 수험생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수능을 치른 A(19·광주시 서구)양은 시내 학원가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50% 할인받은 100만원에 구매했다가 중도해지를 요청했지만 "할인가로 계약해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B(19)군도 지난해 수험생 할인으로 선택 3개월 헬스 클럽이용권을 30만원에 구입했다가 한 달 뒤 계약하는 과정에서 5만원만을 돌려받았다. 이 밖에도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

468건으로 76.7%를 차지했으며 과도한 위약금 요구 110건(18%), 기타 32건(5.2%)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4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학 및 자격증 교재 95건, 다이어트식품 등 기타 86건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 김중남 광주본부장은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가장해 수험생들에게 접근한 뒤 정확한 계약 조건 설명이나 보호자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교육청과 협의해 능력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견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대상은 405건으로 153개 문항에 관련된 것이었다. 평가원은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받아 이의심사실무위원회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제 및 정답에 이상없음'으로 판정했다.

평가원은 153개 문항에 대한 심사결과와 그 중 언어영역 20번, 31번 등 15개 문항에 대해 수험생의 이해를 돕는 상세 답변을 이날 오후 5시 홈페이지(www.kice.re.kr)에 공개했다.

수능 문제·정답 '아무 이상 없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8월 시행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 및 정답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 153개 문항을 심사한 결과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평가원에 따르면 8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713건이었다. 이 가운데 문항과 관련 없는



불우이웃돕기 기금 마련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1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랑나눔 행복나눔 2012 송년 나눔행사'에서 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구청 청년간담회의 회원들이 만들어 내놓은 수제비누·쿠기 등을 구매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1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랑나눔 행복나눔 2012 송년 나눔행사'에서 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구청 청년간담회의 회원들이 만들어 내놓은 수제비누·쿠기 등을 구매하고 있다.

학칙위반, 중학생이 더 심하네

광주 을 정계 1086명으로 고교생보다 많아

중·고교 교사들 곤욕

광주지역 중·고교 교사들이 '말 안듣는' 학생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광주시의회에 행정사무 감사자료로 제출한 '2012년 학생 징계현황'에 따르면 을 8월31일 현재 광주지역 중·고교생을 통틀어 2029명이 무단결석, 음주·흡연, 교사 지도 불응으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교사지도 불응으로 징계를 받은 중학생은 172명, 고교 169명에 달했고, 이들은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등 징계를 받았다. 퇴학처분을 받은 고교생도 13명에 달했다. 교사지도 불응 사례는 수업방해,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 등이었다.

광주지역 전체 초등학교에서

이런 사례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4명에 그쳐 중·고교생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방증했다. 중학생들의 부적절한 생활태도는 고교생들을 능가했다. 음주·흡연 등 비행과 크고 작은 학칙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중학생은 모두 1086명으로, 고교생(943명)을 넘어섰다. 음주·흡연으로 징계를 받은 고교생은 267명이었으나 중학생은 271명이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육체적으로 성장했지만 절제할 줄 모르는 중·고교생들 때문에 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단은 물론 가정에서도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육체적으로 성장했지만 절제할 줄 모르는 중·고교생들 때문에 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단은 물론 가정에서도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60억대 관급자재 수주 경쟁

광산구 발주 7개 마을 하수도공사
업체·공무원 유착설 제기 등 부작용

광주시 광산구가 발주 예정인 수십억 원대의 관급자재를 놓고 업체들 사이에 수주 경쟁이 치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광산구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광산구 원인곡과 명화, 용곡, 칠성 등 총 7개 마을에 사업비 204억여원을 들여 마을하수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을 마친 후 주무부서인 건설과가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한 상태로 관급 자재금액만 63억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급자재를 수주하기 위한 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 계약을 앞두고 특정업체와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설까지 제기되는 등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1억 미만의 관급자재를 구입할 경우 발주처의 의지에 따라 조달청(MAS)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방법의 실질적인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1억 이상의 관급자재도 분리 발주를 하거나 조달 우수제품 등을 구매하는 방법의 또 다른 수의계약이

가능해 발주처에 대한 관련 업체의 로비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PVC파이프' 관급자재도 사전 관련 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금액이 노출돼 특정 업체에 11억원 상당을 몰아주기 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태다. 이와함께 3억원 상당의 '맨홀' 관급자재도 관련 공무원이 10%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을 비롯해 수주경쟁을 위한 업체들의 공무원 인맥망이 도를 넘은 상태라는 것.

A업체 관계자는 "해당 5가지 관급자재의 통상적인 리베이트가 20%~25%이다"라며 "발주처가 조달청(MAS)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해주면 곧바로 리베이트를 건네주는 형태로 로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계약에 앞서 업체들의 수주경쟁이 치열해 퇴근 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도 업체들 사이에 역적이 분분한 것 같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오늘 날씨
강풍 주의하세요
아침 일부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었다.
광주 구름많음 2/10C, 목포 구름많음 5/10C, 여수 구름많음 5/12C, 나주 구름많음 -1/10C, 완도 구름많음 5/11C, 구례 구름맑음 0/10C, 강진 구름맑음 2/10C, 해남 구름맑음 3/11C, 장흥 구름맑음 3/11C, 순천 구름맑음 0/10C, 영광 구름맑음 1/10C, 진도 구름맑음 5/10C, 전주 구름맑음 0/10C, 군산 구름맑음 0/8C, 남원 구름맑음 -2/9C, 옥산도 구름맑음 8/10C

광주·전남 총경 승진자 4명

서병률·이성순·박상우·이용석

광주·전남에서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에 지난해와 같이 4명이 승진했다.

경찰청은 19일 광주지방경찰청 보안과 서병률(43·경찰대 7기·사시 41회) 보안계장 등 광주·전남경찰청 경정 4명을 포함한 65명을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서 계장을 포함해 경무과 이성순(여·54·순경 출신) 교육계장이, 전남에서는 경비교통과 박상우(50·간부후보 34기) 안전계장과 이용석(45·간부후보 43기) 감찰계장이 각각 승진했다.

광주청 서 계장은 사시 합격 후 2004년 경정으로 특채됐으며 1979년 순경으로 입문한 이 계장은 2005년 경정으로 승진했다. 광주·전남에서 여성 총경이 배출된 것은 지난 2006년 한계수 총경, 지난해 박영덕 총경에 이어 세 번째다. 전남의 박 계장과 이 계장은 각각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경정으로 승진했다.

이성순 총경 승진 예정자는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앞으로 맡게 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형마트 절도 사건

112신고 접수 일원화

전남지방경찰청이 19일부터 대형마트 내 절도 사건을 112 범죄신고로 접수할 일원화하고 마트 절도범 검거를 행사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드러난 대형마트 내 절도사건 피의자에 대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안업체 관계자의 횡포로부터 소액 절도용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형사가 사건 내용을 보안요원로부터 건네받아 수사했던 관행을 근절하기로 한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환상제주 여행사 파트너 모집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1일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 "환상제주" 피켓팅 - 식사(개별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2일 호텔 조식 후 관광 - 아름다운과 행복을 주는 동백연의 카멜리아일랜드 - 천지연폭포 - 석부자대미공원
3일 호텔 조식 후 관광 - 탐라원(토산품점) - 심나무술길 경유 (선덕관)에차아일랜드 or 라스베가스 레크리에이션 - 꽃지알 테마차 에코랜드 테마파크
제주도골프투어-항공/선박골프패키지
<해비치+세인트포기준 18홀 + [숙소] 해비치리조트 1박>
여행사 파트너 모집
환상제주 여행사의 하이센스여행사, 이우여행사, 메이투어, 한빛투어, 침담/투어디자인, 무등파크여행사, 동구/다니엘여행사, 고고투어